

지고연 '일·생활 균형 광주지역 추진단' 선정

(지역고용정책연구원)

모범사례 기업 추천...근무혁신 인센티브 제공

마켓크리에이터 창업·증장년 취업연계 등 지원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광주지역 추진단으로 선정됐다. 24일 연구원에 따르면 추진단은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모범사례가 되는 지역 기업체들을 정부에 추천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제공한다.

또 관련 정보가 부족한 취약사업장을 선정해 전문 노무사 연계 인사·노무 및 지원사업 매칭 등 중점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마켓 크리에이터 양성 및 창업·창직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창업가 10명을 모집, 사업과 관련 교육을 제공하

고 최종 5명에 대해 초기 사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퇴직자와 신중년층 95명을 모집해 사전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30여 개 참여기관을 발굴해 참여자 맞춤형 매칭으로 증장년층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고용서비스 수요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404명의 구직자를 취업 매칭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올해에도 추진해 800여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로상담 제공과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지원제도 설명회와 CEO포럼 등을 개최해 유기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일·생활 균형 인사·노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사회 근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공감 문화 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유일 이사장은 "지역 고용구조와 현안을 면밀하게 분석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용안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지역혁신 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사업을 수임받아 추진해왔으며, 지역 고용정책 전문 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선옥 기자

중기 지역본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민주당·민생당 방문

제품 구매확대 등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민생당 광주시당을 방문해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운영덕(동남갑), 이병훈(동남을), 양항자(서구을), 조오섭(북구갑), 이형석(북구을), 이용빈(광산갑) 등 현역 후보 6명이 참석했으며 민생당은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석원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과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해 광주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8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지난해 9월부터 14개 중소기업단체와 전문가 그룹을 통해 총 9개 분야 261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핵심과제로는 ▲납품단가조정협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을 방문해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중기 지역본부 제공

의권 부여 등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상생협력법 보완을 통한 대경기 상생협력 지원계획 마련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순해보협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격기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건의했다.

광주전남지역 주요과제로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광주전남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특성화골목 육성 및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석원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건의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과제들이 꼭 21대 국회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보해양조 '오너3세' 임지선 현 대표 재선임

보해양조 대표이사 오너3세인 임지선 현 대표가 재선임됐다.

보해양조는 24일 오전 9시 목포 분사 4층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제68기 재무제표, 이사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임지선 현 보해양조 대표가 재선임됐다. 임지선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이다.

2018년 3월 보해양조 대표로 선임됐던 임 대표는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3년부터 보해양조 영업총괄본부장을 맡아 경영에 참여해왔다.

부사장 승진 이후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영업을 주도하며 중국 알리바바 입점 등



구직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임 대표는 보해양조 창업주 임광형 회장의 차남인 임성우 차에태만을 회장의 장녀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조영석 현 보해양조 부사장, 오명호 현 보해양조 영업전략본부장 겸 전남본부장의 신규 이사 선임 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와함께 박근택 전 법무연수원장의 신규 사외이사 선임건과 임종욱 상근 감사의 재선임 건도 의결했다. /서미애 기자

이전 공공기관, 지역 발전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한전·한전KPS·콘진원 발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이전공공기관들의 2020년도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한전전력공사는 5억원을 투입해 광주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12곳)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한전KPS는 지역협력업체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민관합의체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한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한전전력공사는 5억원을 투입해 광주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12곳)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한전KPS는 지역협력업체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민관합의체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한다. /박선옥 기자

광주신용보증재단 송정지점 개점

송정·평동·선운지구 보증 사각지대 해소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보증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송정지점을 개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송정지점 개설은 광산구 지역의 상권 확장 및 인구 증가에 따른 보증 수요 증가, 송정·평동·선운지구 소재 소상공인의 광산지점 이용 불편완 호소 등에 따라 각계각층의 설치요청을 수용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의 검토 및 준비기간을 거쳐 개점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의 보증신청 급증으로 인해 보증심사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송정지점 개설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속한 보증지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산구 소상공인의 보증 이용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변정섭 이사장은 "송정지점 개설을 통해 그동안 광산지점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송정·평동·선운지구 인근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보증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송정지점을 개점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제공

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단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신청 및 심사 절차 간소화, 업무 위탁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적시에 자금 공급을 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코로나19 영웅 발굴 공모전 개최

내달 8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와 사회가 위축된 이 시기에 전국민을 감동시킨 미담영웅을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네이버의 후원을 받아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열린다.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앞장서는 의료진 또는 공무원, 소외계층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남몰래 선행을 베풀던 체나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총 1,000만원의 상금이 걸린 공모전은 자유양식으로 2,000자 분량의 미담 수기나 미담현장을 느낄 수 있는 사진 중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김영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영웅은 향후 진행되는 재단 행사에 초청하여 수상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나눔과 선행을 잃지 않는 기업과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기에 이번 국민을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2012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임직원 연합봉사단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선옥 기자

전남 농축협은행 창구 투명 안심가림막 설치

농협전남지역본부와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 지역 농축협은행(50개소 320개)과 농축협(452개소 2,260개) 영업점 창구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림막(아크릴판)은 가로 45cm, 세로 45cm 크기로 고객과 직원간 접촉을 최소화, 비말감염 위험과 불안을 덜기 위한 것으로, 아크릴판 구조물 하부에는 흡이 파여 신청서 등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가림막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면서 "고객들도 대체로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NH농협은행과 농축협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개인용 살균제를 제공, 매일 창구, 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광은, 코로나 극복 긴급구호박스 전달

광주은행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구호박스 700개를 제작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광주은행 송중옥 은행장과 이성욱 노동조합 위원장, 임직원 30여명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마음을 담아 마스크와 핸드워시, 식료품 등 19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박스 700상자를 직접 제작

하는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700개의 긴급구호박스 중 500개는 광주·동·서·남·북·광산구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나머지 200개는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광주시립오양병원 진료소의 의료진에게 전달된다. /서미애 기자



광주은행이 24일 송중옥 은행장과 이성욱 노동조합위원장,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에 긴급구호박스 100개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세관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서비스'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서비스'란 수출 예정인 물품 또는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에서 사후검증요청 이전에 FTA협정상 한국산이 맞는지 우리세

관에서 확인해줌으로써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고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해도 실제 FTA 사후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코로나 19 영향으로 서면으로 우선 심사·안내하며 향후 코로나19 종결 후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품목분류 적정성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전준비사항 및 대응요령 등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터키·EU회원국으로부터 서류의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국가로 수출하는 업체가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FTA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서미애 기자